

국제협력실장 인터뷰

한국법제연구원 박광동 국제협력실 실장

정리: 장은혜(한국법제연구원 국제협력실 부연구위원)

Q1.

올해 한국법제연구원에 국제협력실이 신설되었는데,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박광동 실장

국제협력실의 신설배경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제협력, 성과확산, 기관홍보 등에 대한 창구의 집중화를 통한 기관의 위상제고 도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래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각 부서나 사업단위에서 국제협력과 성과확산 등의 업무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업무의 분산화에 의해 통일적이고 유기적으로 업무가 수행되지 못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기관차원의 연구네트워크 구축, 홍보 극대화 등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국제협력실이 신설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Q2.

국제협력실에서 맡은 업무와 추진 중인 사업을 소개해 주세요



박광동 실장

국제협력실은 현재 국제협력(법제교류지원사업 포함), 성과확산 및 기관홍보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법제교류지원사업(ALIN)에 관한 사항, ②한국법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③타기관과 업무협약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④국내외 공동학술회의 및 정책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⑤성과확산 및 기관홍보에 관한 사항, ⑥학술지 및 기관지 발간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①법제교류지원사업과 ②한국법연구지원은 한국법제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sia Legal Information Network) 및 법제교류협력포럼의 지속적 운영 및 그 밖의 국가와의 네트워크를 확대함으로써 한국법의 국제적 확산 및 체제전환국 또는 개발도상국에게 한국형 입법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영문화된 한국법 소개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아시아를 중심으로 중남미 등의 중점 국가를 선정하여 초기이지만 입법지원컨설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③타기관과 업무협약 및 대외협력과 관련하여 해외의 주요 기관 및 국제기구 및 국내의 주요 기관과의 MOU체결 및 실행협의를 통하여 한국법제연구원의 대외협력의 효과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④국내외 공동학술회의 및 정책협의회 지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으로는 우리나라 법제 관련 저명인사 및 영향력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현재 및 미래의 입법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입법정책포럼 및 주요 부처 등과의 정책협의회 개최를 통하여 우리나라 입법정책의 미래를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정책의 입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⑤성과확산 및 기관홍보에 관하여 현재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개최 되는 학술포럼 등 주요 연구결과에 대하여 국가적 기여 및 정책적 기여도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성과확산을 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연구원의 홍보를 통한 한국법제연구원의 위상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⑥학술지 및 기관지와 관련하여 한국법제연구원의 대표적 학술지인 법제연구, 법연, 법제이슈프린트 등에

대한 발간을 통하여 한국의 법제 현황 및 미래의 법제 예측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무적인 기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3. 국제협력실의 각 파트별 담당자들은 어떻게 되는지요?



박광동 실장

국제협력실이라는 특성상 업무가 대외협력, 성과확산, 기관홍보 등으로 나누어져 있기는 하나, 상호 유기적이고 상호적으로 업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업무 중 비중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은혜 부연구위원, 공효영 초청연구원, 백영주 위촉연구원, 임희선 위촉연구원 등이 ①법제교류지원사업(ALIN)에 관한 사항, ②한국법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③타기관과 업무협약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은혜 부연구위원은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방향성에 관하여, 공효영 초청연구원은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sia Legal Information Network)업무 및 국제교류 관련 실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영주 위촉연구원과 임희선 위촉연구원은 법제교류지원사업 및 ODA 관련 국제교류 관련 실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공동학술회의 및 정책협의회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장은혜 부연구위원, 송영선 전문연구원, 백영주 위촉연구원, 임희선 위촉연구원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성과확산 및 기관홍보와 관련하여서는 임소진 행정원과 노혜신 사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술지와 기관지업무는 송영선 전문연구원, 임소진 행정원과 노혜신 사무원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Q4.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요 연구 네트워크는 무엇이 있나요?



박광동 실장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연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법제연구의 국제화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연구 네트워크로는 국제협력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아시아법령정보 네트워크(Asia Legal Information Network) 및 해외한국법연구네트워크, 기후변화법제연구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후변화연구네트워크, 글로벌법제 연구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국제기구네트워크 등이

있습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대로 17개국 3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sia Legal Information Network)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 법제경험을 공유하여 대상국에 입법지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한국법연구네트워크는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sia Legal Information Network) 이외에 국가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제 및 중요한 이슈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우리나라 법제를 해외에 소개하기 위하여 영미 및 유럽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기후변화연구네트워크는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국내외 관련 전문가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나라에의 대응방안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등에 우리나라의 선진적 기후변화 제도의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국제기구네트워크의 경우는 종래 개별 국가 단위 또는 기관 단위에 의한 지역적 교류네트워크에서 벗어나 전 세계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법제 이슈의 정보공유네트워크입니다.

Q5. 국제협력실의 효과적 업무수행을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박광동 실장

국제협력실이 효과적으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대내적으로는 국제협력실원들간의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틀리다'가 아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국제협력실의 업무는 주로 다른 기관 또는 전문가와의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실질화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연적인 네트워크 확대가 아닌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실질적인 상호 네트워크 구성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